

2. 국내 경제 전망

가. 최근 국내 경기상황

□ 지난(2018.11월) 전망 이후 국내 경제는 건설 및 설비투자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및 수출 증가세 또한 크게 둔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부진한 모습

- 2017년 이후 IT 부문이 설비투자 및 수출 변동을 주도한 가운데, 최근 글로벌 IT경기 둔화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설비투자 조정 및 수출 둔화를 초래
- 또한, 정부 투자 변동(2018년 4분기 18.2% → 2019년 1분기 -15.1%)과 같은 일시적 요인 또한 1분기 성장률(-0.3%) 하락에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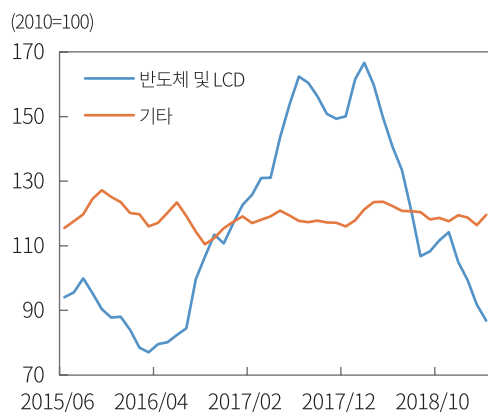
〈표 1-6〉 경제성장률 추이

(단위: 전기대비, %)

	2018년					2019년
	연간	1/4	2/4	3/4	4/4	1/4
GDP 성장률	2.7	1.0	0.6	0.6	1.0	-0.3
민간소비	2.8	0.7	0.3	0.5	1.0	0.1
설비투자	-1.6	3.4	-5.7	-4.4	4.4	-10.8
건설투자	-4.0	1.8	-2.1	-6.7	1.2	-0.1
수출	4.2	4.4	0.4	3.9	-1.5	-2.6
총고정자본형성(민간)	-2.8	3.2	-4.2	-4.0	-0.9	-0.3
총고정자본형성(정부)	1.0	-5.2	5.6	-8.1	18.2	-15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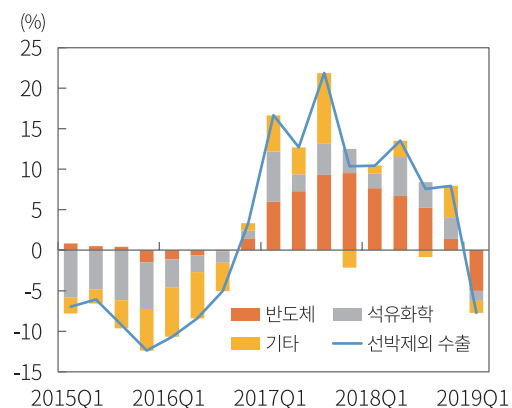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-14〉 부문별 설비투자



자료: 통계청, 자본시장연구원 추정

〈그림 1-15〉 부문별 수출 기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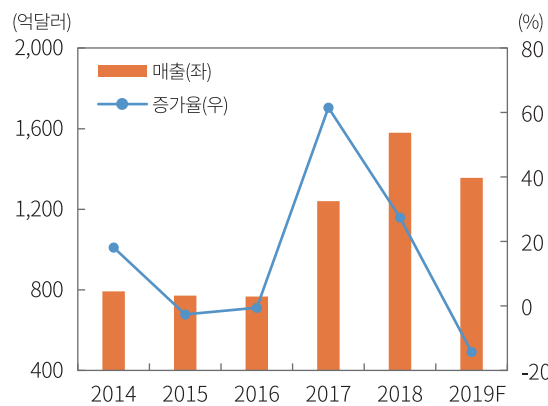
자료: KITA, Datastream, 자본시장연구원

나. IT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평가

□ 향후 IT경기 회복에 대해 주요 기관들이 대체로 2019년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회복 강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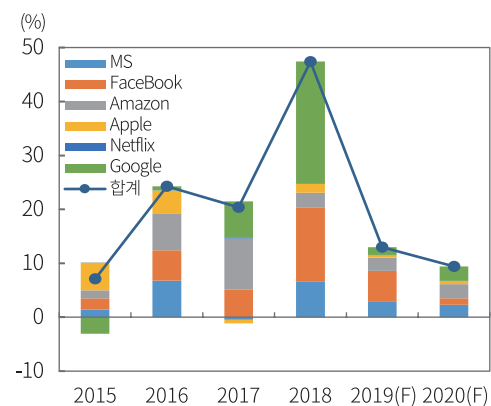
- 주요 서버업체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완만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경기의 회복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여 반도체 업체들이 대규모 설비 증설보다는 공정 최적화에 주력할 전망
-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양상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통해 IT 경기 회복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
〈그림 I-16〉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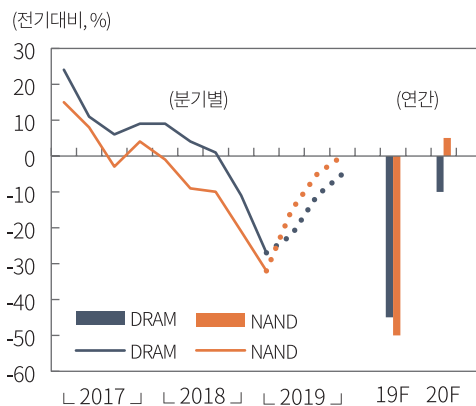
자료: WSTS, Datastream

〈그림 I-17〉 주요 서버업체 설비투자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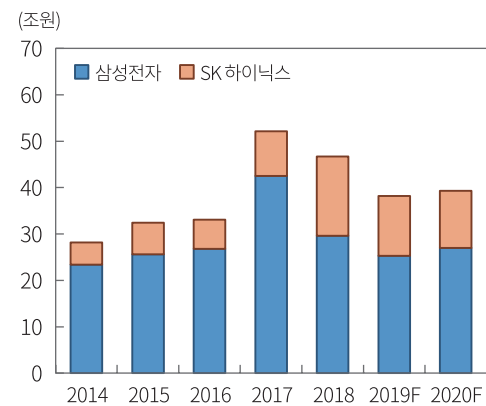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I-18〉 메모리 반도체 평균가격



자료: Bloomberg, Dataguide

〈그림 I-19〉 반도체 업체 설비투자



자료: Bloomberg, Dataguide

다. 경제성장률 전망

□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Baseline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2019년 성장률이 2%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20년에는 2% 중반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

-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로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나, 정부의 가계소득 기반 강화 및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건설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부진이 지속될 전망
- 가파른 IT 경기 하락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, 개선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

〈표 1-7〉 경제 성장률 전망 (Baseline 기준)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	2018년	2019년			2020년
		상반기	하반기	연간	
GDP 성장률	2.7	2.0	2.4	2.2	2.4
민간소비	2.8	2.1	2.3	2.2	2.4
건설투자	-4.0	-4.9	-2.0	-3.4	-2.0
설비투자	-1.6	-9.5	0.5	-4.7	2.5
지식재산생산물투자	1.9	2.2	2.5	2.3	3.0
총수출	4.2	0.3	1.7	1.1	4.0
총수입	1.7	-3.3	1.2	-1.0	3.7

□ 한편,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금년 성장률은 2.0%에 그칠 전망

〈표 1-8〉 기타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

(단위: %)

	2019년	2020년
무역전쟁 격화	2.0	2.1
연내 타결	2.3	2.7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